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3/30℃ 목포 22/28℃ 여수 22/26℃

단기 4342년 (음력 6월 1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37호 1판 2009년 8월 5일 수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술적 문제’ 나로호 발사 또 연기

지역민들 허탈…러 종속 탈피 자체 기술 개발 서둘러야

오는 11일 발사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의 발사가 기술적인 이유로 또다시 연기됐다. 〈관련기사 3면〉

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나로호 발사 관련 사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나로호 1단 연소시험이 지난달 30일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나 시험 결과의 상세분석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할 기술적 이슈(technical issues)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최초 발사 예정일이었던 지난 2007년 10월부터 이번까지 모두 6차례 나로호 발사가 연기되면서 관계자들은 물론 지역민들도 속수무책으로 러시아측만 바라보는 실정이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주개발 종속국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자체 발사기술을 개발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로호 6차례 발사 연기, 식당 등 예약 취소도=나로호의 최초 발사 예정일은 지난 2007년 10월이었지만 이듬해 12월로 1년 2개월가량 연기됐었다. 이후 발사대 시스템 설치 지연과 성능시험 문제로 두 차례 더 미뤄지고 발사체 1단에서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연기되는 등 모두 6차례 발사가 지연됐다.

나로호 발사가 계속 늦춰지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인 고흥군과 지역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고흥군은 11일 나로호 발사를 축하하기 위해 남열해수욕장에서 ‘고흥지역 문화공연’과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했지만 지난달 30일에 이어 또다시 뒤로 미뤄져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발사 당일 서울에서 400여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이었던 ‘관광열차’ 운행도 연기됐으며 숙박업소, 식당 등 예약도 무더기 해약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공모를 통해 모집한 시민들과 이주민·소외계층 등 500명의 독도함 승선객들은 발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승선하지 못할 수 있어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주개발 종속국에서 벗어나야=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문제를 발견해 나로호 발사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측의 계속된 요구로 지연되는 만큼 자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주개발 종속국이 아닌 기술 보유국으로 하루빨리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기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로켓을 100% 우리 기술력으로 발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천문학적인 예산과 핵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요원한 상태”라며 “우주개발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빌 클린턴 전격 방북

〈前 미국 대통령〉

여기자 2명 석방 교섭…북핵 등 ‘중대 제안’ 가능성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전격 방북했다. 〈관련기사 3면〉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은 이날 일제히 정오뉴스를 통해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며 공항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북한에 억류돼있는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고위 소식통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특별기를 이용해 4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북한측과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한 교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소식통도 “미국 본토 쪽에서 출발한 비행기 1대가 알래스카 쪽의 (민항기의 노선인)미주항로로 비행해 북한으로 접근한 뒤 오전 10시48분께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1990년대 제1차 핵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 방북과 비견되는 것으로, 카터 방북 당시 북·미간 대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없지 않다.

특히 과거 재임시절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 나섰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도 회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평양 도착후 북한측 당국자들과 억류중인 여기자 석방 등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5일 이들 여기자와 함께 귀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이 이미 여기자 석방에 대한 ‘외교적 신호’를 미국측에 전달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신속하게 여기자들을 인계받아 함께 귀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미국 현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자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특히 정치 현안과 여기자 문제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일행에 정부 당국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측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고려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핵심 정치현안에 대해 ‘중대한 제안’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클린턴 전대통령은 이번 방북의 중대성을 감안해 백악관, 국무부 등과 사전조율을 거쳐 방북길에 올랐을 것으로 보여 구두 형식 등을 통해서라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타계

해남 자택서 심장마비로…부인 음독 치료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 리스트 조오련씨가 4일 심장마비로 타계했다. 향년 58세. 〈관련기사 6면〉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자신의 집 현관에서 쓰러져있었으며 부인 이성란(44)씨 등이 발견,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119 구조대에 의해 해남종합병원으로 낮 12시10분께 이송된 조씨는 12시 45분 숨을 거뒀다.

출동했던 119 구조대 관계자는 “발견 당시 호흡과 심장이 멈춰있어 위독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현재로서는 (조씨의 사망원인은)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아들 성모·성웅씨, 부인이 있다.

해남읍 국제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태환 선수 등 수영계 인사 등이 보낸 조화가 이어졌다.

조씨는 지난 1980년 8월 첫 횡단 이후 30년 만인 내년 광복절 대한해협 횡단에 재도전하기 위해 제주도에 캠프를 차려놓고 준비해왔으며, 1주일 전부터는 해남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지내왔다.

또 이날 오후 3시40분께 부인 이씨마저 자택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조씨와 결혼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택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뒤 오빠의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해남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시·도지사에 SSM 허가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제약받을 듯

골목 상권까지 빼앗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 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전격 위임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분쟁이 발생하면 1차적인 조정 역할을 지자체가 맡게 돼 SSM의 지역 진출이 크게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는 앞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중소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대기업의 골목 진출과 지역 중소 슈퍼간의 조정을 맡는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대기업의 무리한 SSM진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만약 협의회가 ‘자율조정’에 실패하면 중기청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를 다시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조정권고나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개정된 고시는 지금까지 제출된 18건의 사업조정 신청부터 적용된다. 광주에서는 지난 3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제출돼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 웨딩 패키지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0